

## 대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성 심리과정 모형과 그 기능

유 승 엽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의례적'이란 말이 뜻하는 것을 현상적 이해수준에서 알아보았고, 이를 기초로 의례적 언행의 심리 내재적 속성(전례성과 허식성)을 규정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이론들과 의례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의례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아침과 예의와 의례성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자는 의례성의 형태로 세가지 유형(인사적 의례성, 상대배려적 의례성,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을 추출해 보았으며, 의례성에서 복잡성과 오해를 유발하기 쉬운 허식성의 속성을 상념과 의도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의례적 언행과 관련하여 빈말과 거짓말이 어떻게 의례성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기적 측면에서 상대 중심적 이타의례성과 자기중심적 이기의례성을 구분해 보았다. 또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인의 의례성을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서구식 단순해석적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고, 의례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개념화에서 의례성의 정의, 의례성 유발상황과 의례성의 세가지 유형에 따른 의례성 발현조건과 의례성 수용양식을 도식화하여 의례성 심리과정 모형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적 언행에 대해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한 에피소드를 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오랜 동안 한국에 살고있는 어느 불란서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 해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행동중 하나를 에피소드 형태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인 즉, 한국인들이 회식석상에서 노래를 시킬 때 반드시 윗사람을 빼지 않고 지명하지만 막상 지명받은 상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노래를 그렇게 간청했던 참석자들은 그 노래를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끼리 잡담을 하고 있으며 이 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여동찬, 1987).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도 공통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거의 공인되다시피한 한국인의 의식구조적 특성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을 형식주의, 체면중시, 표리부동 등의 한국인 특성개념들을 원용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외국인은 오랜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한국인의 의식구조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체면이나 형식주의, 표리부동 등의 개념에 대해 익히 잘 알고있는 사람이다. 그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체면을 중시한다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

는 동안 옆사람과 잡담을 할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르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부하직원들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고도 불쾌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느냐에 있다. 상사의 체면을 중시한다거나 형식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상사가 노래를 부를 때 부하직원들은 이를 경청할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나온다.

이 현상을 학문적 차원을 떠나 상식적 일상대화 맥락에서 살펴보면, 부하직원들은 '의례적'으로 노래를 시켰고 또한 상사 자신도 이를 '의례적'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의례적'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의미로서의 '의례적'은 의식과 예절을 갖추는 뜻에서의 의례성(儀禮性)을 함유하며, 따라서 의례(儀禮) 자체는 아니다. 좀 극단화시켜 표현하면, 사이비 의례이며 따라서 의례의 형식만을 띤 것이다.

다시 본래의 에피소드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이 노래를 시키는 본 뜻은 상사의 노래 자체를 듣는 일보다 "당신은 우리들의 윗사람으로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라는 이면 메시지를 지니고서 상사에게 노래를 시킬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상사도 그 이면 메시지를 이미 읽고 있으며 그 메시지에 대한 화답으로 못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 그 상사의 노래 이면에도 똑같이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례성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례라는 형식을 빌어 그 의례 자체와는 의미가 다른 이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례화된(ritualized) 언행과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1994. 9. 26)의 한 칼럼에서 독일의 대한(對韓) 비즈니스 안내서에 나타난 한국인의 특성중의 하나로 '한국인은 영어를 몰라도 아는 척한다'라는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인의 입장에서 이를 위선적 행동, 자기과시적 행동, 또는 체면지향적 행동 등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나,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의례적 행동 또는 의례성을 띤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지 모른다.

일상생활에서 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말을 이

해하지 못할 때 다시 묻는 경우를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구태여 다시 묻는 행동 자체가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숨은 메시지를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말도 이해하는 척하고, 한국인의 사회에서는 상대도 이러한 행동의 이면 메시지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덧붙일 수 있는 것으로 의례적 언행에는 상대의 심정에 대한 배려가 전제 또는 관여된다는 점이다.

동아일보사(1991)에서 간행한 '한국인 진단: 자기성찰을 통해 본 우리의 자화상'의 책에 한 주제로 실린 「'겉'과 '속'이 다르다」에서 의례성과 심정과의 관계를 적절히 묘사하는 일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식사 때에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으레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이를 곧이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설명끝에 "알겠습니까"하면 학생들은 이해여부를 떠나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예의이다(한국인 진단, p. 194).

위의 사례에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먹었다"라고 말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선생님이 이해여부를 물을 때 "예"라고 답하는 것은 상대의 입장과 심정을 배려한 의례성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러한 현상을 표리부동의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그 현상을 표면적 언행의 진위에만 초점을 둔 단순해석이란 점에서 실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상계서의 동일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개된 또 하나의 사례를 아래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회사원 남상철씨(34)는 크게 후회할 만한 경험을 갖고 있다. 89년 회갑을 맞은 어머니에게 회갑잔치를 벌이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렇게 젊은 데 쑥스럽게 무슨 잔치냐. 칠순때나 보자"며 사양하는 바람에 다른 해보다 생일상을 크게 마련하는 정도로 지나갔다.

그러나 그 후 남씨는 집안 어른과 어머니의 친구 분들로부터 "말이야 그렇게 하시지만 속마음이야 그

렇겠느냐”는 질책성 조언을 받고는 ‘아차’ 싶어 부라 부라 회갑잔치를 열어드렸더니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눈치를 보이더라는 것(한국인 진단, p. 194).

위의 일화에서 남상철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미리 예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기대와는 상충되는 언행 즉, ‘아직 이렇게 젊은데 쑥스럽게 무슨 잔치냐, 칠순 때나 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말은 나중에 실제로 자식의 회갑잔치를 받았을 때 즐거워했다는 행동을 통해 본심이 아닌 말말이 입중된 셈이며 의례적으로 한 말로 판명되었다. 여기서 전자와와는 다르며 한 단계 더 복잡한 의례성의 형태를 찾아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의 욕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의례적 언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대심정의 배려적 측면에 부가하여 언행자가 자신의 욕구나 기대에 상반되는 언행을 해보인다는 점이다. 여기서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언행자의 마음 속에 상대가 자신의 심정이 실제의 언행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언행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례성에 대한 감지를 기대하면서 한 어머니의 언행에서 남상철씨는 의례성을 감지하지 못한 반면 집안 어른과 어머니 친구들은 이를 의례적 언행으로 감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의례적 언행을 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머니는 자식의 심정을 건드리지 않고 의례적인 말에 대한 효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의례성을 올바로 파악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마음도 즐거울 수 있었다. 이 예를 통해 의례성의 사회적 기능을 포착할 수 있다. 즉 의례성은 상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의례성보다 더욱 복잡한 형태의 의례성은 상호작용하는 양방이 서로가 상호에게 의례적 행동을 주고받는 양방향성 의례적 행동이다. 예컨대,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이 함께 야근할 때, 상

사가 아랫사람에게 “다들 먼저 퇴근하지, 내가 남아서 마저 처리하고 갈게”라는 말을 의례적으로 했다고 하자. 실제로 이런 일은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이 때 아랫사람은 그 말이 상사의 본심이 아님을 익히 짐작하고 있고, 상사 자신도 실제로 언어적 의미 본래의 신념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사는 자신의 신념을 거짓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아랫사람은 상사의 신념이 아님을 알고서 상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의 언행에 상응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부장님 먼저 퇴근하십시오”라고 응답한다고 하자. 이 말을 의례적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사와 아랫사람은 서로 의례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서로가 상대의 의례성을 감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성 의례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서로가 거짓말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쾌감을 갖기는 커녕 만족스러운 마음을 넘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념과 본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은 신념과는 무관한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의 이면에 있는 본심 즉, 서로 상대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례성에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하는 언행자 자신의 동기가 어떠하며, 또한 어떻게 지각되느냐에 따라 의례적 언행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위의 사례에서 아랫사람의 동기가 상사의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그 아랫사람은 의례적 언행을 한 것이 되며, 이 의례적 언행을 상사 자신이 의례적 언행으로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것은 그 의례적 언행의 이면에 있는 아랫사람의 동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양방에 모두 해당된다. 물론 의례적 언행이 그 언행자의 신념에 기초한 진실한 언행으로 상대방 즉, 수용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의례성의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효과는 배가된다. 실제의 생활장면에서 의례적 언행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진실한 언행이 의례

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의 사례나 일화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 점은 의례적 언행이 상황적 적합성과 관계적 예의성의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욕구와 지위 등과 같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을 배려하는 행위는 예절의 기본이란 점에서 예의성 기준에 적합하며,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질문에 “예”라고 답하거나 아들의 회갑잔치 제안을 “칠순잔치”로 돌리자는 어머니의 대답은 양자간의 관계나 사태적 맥락으로 보아 상황적 적합성을 갖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거짓말과 의례성이 구분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상대의 심정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의례성이 빈말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 의례성에 관련된 사회심리학의 이론과 개념

한국인의 대인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성 현상은 크게 인상관리의 측면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의례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심리학 이론 및 개념들을 간략히 제시한다.

#### 자기-표현과 인상관리이론

대인지각과 대물지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기표현이 가능하며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자기 표현의 기능은 공적 자기의 창조와 유지라고 볼 수 있다(Goffman, 1959). 지각자도 행위자가 자기표현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지각된 사실 그대로를 등록해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지각되거나 인지되지 않은 그 사상의 이면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미루어 짐작하려고 한다(Jones & Garden, 1972). 즉, 사람들은 타인과의 제한된 상호작용 과정에서 직접 관찰되는 언행 이면에 숨어 있는 진정한 태도, 감정상태 등을 해석하고 추론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의도, 성질 등을 거짓없이 노출하는 대신에,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짐작하며, 자기에 대한 상대방의 관찰 결과가 가능한 한 자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특징들은 최대화시키고 자신의 부정적인 특징들은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매력 있는 좋은 사람으로 비쳐지게 하려는 욕구와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인상관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인상관리는 실제적이거나 상상된 사회적 상호작용들 속에 투사된 이미지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정의된다(Schlenker, 1980). Schlenker는 타인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도록 자신을 표현한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공적 자기를 창조하려는 이유로서 인정(認定), 자존심의 욕구 등을 들고 있다. 즉,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얻고 인정을 못받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자신을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내으로써 성취하려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욕구는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즉 사회적 인정은 이것이 다른 보상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Wegner & Vallacker, 1980).

이러한 측면에서 의례적 언행은 주로 상대방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지속시킬 목적을 띤 인상관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는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의사소통이 용인되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의 언행 이면에 있는 숨은 의도나 본래의 본심(또는 생각)을 추론하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필수적 선행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최상진과 유승엽, 1994, 1995).

#### 비언어적 의사소통

대인적 상호작용의 상당한 부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nonverbal communic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 지각자는 말이나 행동의 외현적 의미보다는 함축적인 의미에 더 주목하게 되고 또한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이나 비언어적 단서, 부언어적 단서에 더 주목하게 된다. 이는 언어적 단서보다는 비언어적 단서가 사람들의 의식적인 통제를 덜 받으므로 비언어적, 부언어적 단서에 사람들의 진정한 내적 상태가 반영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언어적 채널을 통해 진정한 내적 상태가 흘러나오는 것을 누출가설(leakage hypothesis)이라고 한다(Sears, Freedman, & Peplau, 1985; Gaelick, Bodenhausen, & Wyer, 1985).

한국인의 대인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의례적 상호작용은 특히 언행의 이면에 있는 본래의 의도 및 신념을 추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례적 상호작용 상황에서는 반드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정이 내재된다. 이것은 특히 양방향성 이중심리 의례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언행자가 자신의 이기적 동기(또는 본심)를 유출시키는 심리과정이 내재된다는 점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유승엽, 1996).

#### 메타 커뮤니케이션 이론

대인적 의사소통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명백한 내용중심적 측면과 메타 커뮤니케이션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의사소통과정에서는 메시지 자체 만이 교환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말의 속도, 음의 고저, 얼굴 표정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함축적인 메시지가 상호 교환된다. 즉, 의사소통과정에서 행해지는 메시지의 교환은 자기에 관련된 정보만의 단순한 교환 이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자들은 상대방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관적이고 함축적인 면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메시지의 문자적, 외연적 측면) 뿐만 아니라 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메시지의 함축적 측면)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 메타 메시지이며 이것은 메시지 이면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이다. 전달되는 메시지의 내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상황, 전달자,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메시지의 이러한 메타 커뮤니케이션 측면은 주로 메시지의 비언

어적 특징, 부언어적 특징에 의해 전달된다(Hinde, 1979). 상호작용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칙에 따라 외현적 수준에서 자신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한 정보의 함축적인 의미를 상대가 추론하도록 남겨 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눈치 기제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의사소통과정에는 눈치와 같은 메타 메시지의 전달과정이 흔히 목격된다(최연희, 1990; 최연희와 최상진, 1990). 이러한 과정은 의례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작용하며, 상대방의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상대배려적 언행(상대방의 심정배려의 의례적 언행)을 했을 때, 수용자는 언행자의 이면에 있는 메타 메시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유승엽, 1996).

#### 아침(ingratiation), 예의(politeness) 및 예절(etiquette)과의 관계

의례성을 띤 언행과 유사한 언행양식으로 아침(ingratiation), 예의(politeness) 및 예절(etiquette)이 있다. 아침은 타인에게 의견의 일치를 표현하고, 자기가 그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등과 같은 정적 반응을 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타인의 호감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Freedman, Sears, & Carlsmith, 1981). 아침은 상대의 욕구와 기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언행(Jones, 1964; Jones, Stires, Shaver & Harris, 1968; Jones & Wortman, 1973; Jones & Pittman, 1982)이란 점에서 의례적 언행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침에서는 비록 아침자가 의례적 언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언행이 의례성이 아닌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거나 의례성이 아닌 것을 상대방에게 느끼도록 해 주는 것(Jones & Wortman, 1973; Drachman, DeCarufel & Insko, 1978)이 그 아침의 의도에 적합한 반면, 의례적 언행에서는 경우에 따라 의례성을 유출(leakage)하는 것이 그 의례성의 주기능일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제시된 남상철씨의 어머니의 예에서 그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진심으로 원할 때 '의례적 형식'을 빌어 회갑잔치를 거절한다면, 그 아들도 이것을 의례적 거절이라고 받

아들여서 그 거절과는 정반대의 대응 즉, 회갑잔치를 해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의례적 언행은 오히려 의례성을 유출시킨다.

아침과 의례성의 또 다른 차이점은 언행자의 동기와 관련된된다. 아침에서는 상대방의 욕구의 충족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Jones, 1964; Jones, Stires, Shaver & Harris, 1968)하는 반면, 의례성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는 데 주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기적 의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4).

세번째 차이점은 의례적 언행의 속성 중의 하나인 전례성이다. 여기에서 전례라 함은 전형과 예의를 뜻한다. 전형은 구체적 대인관계 상황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언행의 형식으로 일종의 상황적 언행 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다. 길가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을 때 “너 어디가니”라고 묻는 것은 그 상황에서의 전형적 언행 스크립트이며 의례적 언행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구체적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 질문은 다만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기능으로 족하다. 여기에서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 본뜻을 두고 있다는 것은 곧 의례적 언행 속에는 예의성이 담겨 있음을 암시한다. 분명히 이 질문은 예절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예절의 본질인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예절 ‘성’, 예의 ‘성’을 띠고 있다. 바로 위에서 언급된 전형성과 예의성이 합쳐진 언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의례성이다. 그러나 아침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전형성을 벗어난 아침도 있을 수 있으며, 상황적 예의성과 무관한 아침도 가능하다(최상진, 유승엽, 1994; 한규석, 1995).

의례성이 예의나 예절과 구분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의(politeness)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안면(face)을 일관성있게 유지시켜 주는 언어적/비언어적 체계이다(Brown & Levinson, 1987).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예의가 지켜져야 한다.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자신을 대화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의이다. 예의는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즉 의지적(volitional)인 유형과 구별적(discernment)인 유형이다. 모든 언어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예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Hill, Ide, Ikuta & Ogino, 1986; Ide, 1987). 의지적 예의는 상대방의 안면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고 줄이기 위한 언어적 전략을 말하며, 구별적 예의는 서로의 안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화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언어수준(speech level)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예절(etiquette)은 예의중에서도 구별적 예의에 가깝다고 하겠다.

예절은 상황에 따라 규정된 정형화된 행동양식으로써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사회규범이다(한규석, 1995). 그러므로 의례적 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해 준다. 이를테면 길을 지나가다 지나치는 학생에게 교수가 “어디 가니?”라고 묻는 경우에 실제 교수가 학생의 행선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은 아니며 제대로 된 설명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의례성 물음으로 교수는 학생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의례성은 이미 앞에서 부분적으로 논급된 바와 같이, 예의의 성격을 띤 전형적 언행의 한 유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속한 속어나 비어가 섞인 인사성 언행도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띠고 있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상대가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의례적인 언행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 이 XX 죽은 줄 알았다, 왜 또 나타나서 내 속을 썩히니”라고 의례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의 이면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깃들여 있다면 이 말은 의례성을 띤 인사성 언행이라고 볼 수 있다.

### 의례적 언행의 심리 내재적 속성

의례적 언행의 내재적 속성들은 전례성, 허식성(상념이 없는), 상대방의 관계적 또는 심정적 욕구에 대

한 배려의 동기 등이다. 먼저, 의례적 언행의 속성 중에 하나는 전례성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례라 함은 전형과 예의를 뜻한다. 전형은 구체적인 대인관계 상황맥락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언행의 형식으로 일종의 상황적 언행 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례적 언행이 상대방과의 상황에 적합한 상대배려적인 언행이란 점에서 즉,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배려한다는 데 근본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의례적 언행은 예의성의 속성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전형성과 예의성이 합쳐진 언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의례성이다.

어떠한 언행이 의례적 언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된 전형성과 예의성 이외에 허식성이 전제 또는 관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허식성이라 함은 외현화된 언행과 그 언행자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합치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이 때에 일상적 대인상호작용 상황에서 마음이 없거나 마음과 다른 언행을 할 때 '의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진실성이 없는 언행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진실성이 없는' 언행이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형태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단순한 형태는 특별한 생각이나 의도를 갖지 않고서 전례적 행동을 하는 경우로, 이러한 형태의 의례적 행동에는 '밥 먹었니', '어디 가니' 등과 같은 의례적 인사말이나 '괜찮겠지요', '잘 될 것입니다' 등과 같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는 의미에서의 전형적 언행이 해당된다. 이러한 형태의 의례성을 **인사적 의례성**(유승엽이 최초에는 전형적 의례성이라 명명했었음)이라고 명명하였다(최상진, 1997).

두번째 형태는 **상대배려적 의례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상대를 배려한다' 함은 상대방의 욕구와 기대를 포함하는 심정과 상대와의 관계(지위, 역할, 혈연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사회규범에 부응하는 의례적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거나 본인의 생각이 없는 '상대방을 위한 체면치레말'을 상대방에게 해 주는 것이나, 불행한 사건을 당한 사람에게 상대

가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은 해 주는 것 등이 이 형태의 의례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사적 의례성과 상대배려적 의례성과의 차이는 전자가 상대에 대한 의도적 배려가 깊어 관여되지 않는 반면, 후자가 의도적 배려의 성격이 깊다는 것이다(유승엽, 1997).

세번째 형태는 앞서서의 '상사와 부하직원'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이다. 우선 양방향적이라 함은 상호작용하는 양자가 의례적인 언행을 계열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의례적인 말에 의례적인 말로 응답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또한 이중심리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언행자가 의례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이 점은 앞서 첫째 및 둘째 형태의 의례성에 해당된다), 언행자 자신이 의례적 언행을 함을 상대방에게 유출시키며(leakage), 또 상대방은 이를 감지하고 동시에 상대방도 똑같은 형태로 의례적 행동을 전자에게 되돌려 주는 의례적 상호작용 상황을 말한다(유승엽, 1996).

이 세번째 형태의 의례성이 앞서서의 첫째 및 둘째의 형태와 다른 점은 첫째와 둘째의 의례성은 언행의 의례적 성격을 감추는 형태의 의례적 언행이 주조를 이루나, 셋째 형태에서의 의례성은 유출시키는 것이 의례적 행동의 본래 의도에 부합된다.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의 단순화된 형태는 일방향성 이중심리 의례성이며, 앞서서의 남상철씨 어머니의 회갑잔치에 대한 의례적 거부언행이 이에 해당된다.

끝으로 의례적 언행의 필수적 선행요소인 허식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앞에서 허식성은 1) 마음에 없는 그리고 2) 마음과 다른 언행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언행은 마음에서 유발되며 마음과 직결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상대가 어떤 언행을 했을 때 그 언행을 유발한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마음에 대응하여 자신의 언행을 조정한다. 이 때 언행자의 마음과 언행이 일치할 때는 허식성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으나, 불일치할 때는 허식성의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생긴다. 언행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의 의례적 언행의 이면에 있는 심리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례적 언행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연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출에서 허식적 언행을 유발하는 마음은 다양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상적 언어에서, 1) '마음에 없는' 언행으로서 그 언행에 상응하는 상념이나 그 언행을 유발하는 동기로서의 특정한 의도성이나 목적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성 언행이다. 예컨대, 별뜻없이 상대에게 호의적 평가나 예의적 언행을 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위에서 상념이라 함은 그 언행이 뜻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생각 또는 신념을 말한다. 만일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직접 연계되는 상념은 당신이 '아름답다고 믿는 것'이 되며, 이러한 상념이 있을 때 그 언행은 이러한 상념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념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의례적인 말이 된다.

또한 의도나 목적이 관여되지 않은 것과 관계된 허식적 언행은 그 언행이 지칭하는 언어적 의미 그 자체보다는 그 언행을 유발하는 심리적 동기와 관계된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맥락을 보면 한 쪽은 언어 그 자체의 언어적 의미측면(syntax)이며, 다른 하나는 언어의 뒷면에 있는 의도성 및 동기와 같은 심리적 측면(pragmatics)이다. 심리적 동기와 관련해서 의례적 언행이라 함은 특정한 동기가 관여된 언행에서 그 언행에 상응하는 진정한 동기가 결핍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상대의 체면을 추켜세우기 위한 의례적 언행에서 상대를 높이려는 동기가 없을 때 마음에 없는 칭찬이 되고 허식적 언행으로 규정되고 상대에 의해 의례적 언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에는 2) '마음과 다른' 언행으로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은 상념과 언행이 다르거나, 동기와 언행이 다른 것을 포함한다. 상념과 언행이 다른 경우의 예로는 추하게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 상대에게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경우로, 이는 어떤 의미에서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의례적 거짓말에서는 그 말이 의례성의 측면에서 예의성과 전형성을 갖추고 있어서 거짓말과는 구분되는 의미와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동기와 언행이 다른 경우는 앞의 예

에서 상사에게 노래를 시키는 사례와 남상철씨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의례성을 띠면서 거절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상사에게 노래를 시키는 경우, 언어적 의미는 상사의 노래를 듣기였으나, 동기는 상사를 배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남상철씨 어머니의 경우 언어적 의미는 거절이었으나, 동기적 의미는 자식에 대한 배려와 회갑잔치를 바라는 기대의 복합이었다(최상진, 유승엽, 1994).

의례적 언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앞에서 상대방 배려의 측면에 대해 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적 의례성은 반드시 상대를 위한 상대방 중심적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례적 언행도 있다. 즉, 자신의 표현하기 어려운 동기를 의례적 언행에 실어 연출하고, 상대가 그 언행의 의례성을 파악하도록 하며, 자신의 본 의도와 동기를 감지케하는 의례성도 있다. 예컨대, 회사에서 잔업에 밀려 야근을 해야 할 경우, 상사가 "나는 집에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야근할테니 자네들은 퇴근하게"라고 짐짓 말할 때, 부하직원들은 그 말에 상반되는 상사의 동기를 감지하고 "저희들이 야근하겠습니다"라고 야근을 자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아마 상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하직원들은 평상시처럼 퇴근시간에 퇴근했을 것이다(유승엽, 1996).

## 관련문헌의 고찰

한국인의 의례성에 관한 논문이나 문헌들을 연구자 나름대로 고찰해 보았다. 의례성이나 의례적 언행에 관한 독립된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이나 문헌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의례적 언행' 또는 '의례적'이란 말이나 내용이 글 속에 포함되었거나, 또는 의례성 현상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념이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고찰된 문헌의 성격은 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심리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이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례성에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은 형식주의, 표리부동, 자아은폐, 명분과 당위성 중시, 서열의식, 우회적



표현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고찰의 결과를 정리하기에 앞서 고찰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사항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3-4편의 문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헌이 실증적 연구논문의 형태보다는 일상적 관찰, 통찰력 또는 추론에 근거한 에세이 형태의 글이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위에 소개된 바와 같은 의례성에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의례성이나 의례적 언행이라는 개념과 관련시켜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부분은 그 양에서 많아야 1-2쪽의 분량을 넘지 않을 정도였으며, 이는 이들 저자들의 주 관심 사항이 의례성 현상이나 의례성 개념에 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주제로 잡은 의례성에 관련된 개념들 자체를 설명하는 데 일차적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해석은 '의례적 언행'이나 '의례적'이란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서도 추론된다. 의례적 언행이나 의례적이라는 말 또는 내용이 들어가는 맥락을 보면, 표리부동, 채면 등과 같은 자신들의 주 관심 개념을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례적 언행을 예시로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에서 의례성이란 현상이나 개념이 아직 중추적 개념으로 설정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나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

셋째로, 의례성의 문제를 언급하거나 자신들이 설정한 한국인의 특성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례성 현상을 끌어들이며 인용하는 맥락을 보면, 의례성을 대인적 상호작용과정에서 관여되는 사회심리적 현상으로서 파악하기보다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성격특성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기술의 방식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이러한 의례성 심리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례적 행동이 나온다"는 논리전개가 구조적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되고 시사하는 바로는 의례성은 단순한 한국인 성격특성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인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복잡한 사회심리적 네트워크와 역동성을 갖고서 상호작용적 맥락에서 작용하는 한 가지 형태의 사회심리적 문법(social psy-

chological grammar)이다(최상진, 유승영, 1994). 따라서 의례성과 관련된 기존의 시각이나 설명은 복잡한 의례성 현상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개념화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례성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고찰을 요약한 후에 하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례성과 관계될 수 있는 현상 또는 개념들은 형식주의, 표리부동, 자아은폐, 명분과 당위성 중시, 서열의식, 우회적 표현 등과 같이 다양하며, 이러한 현상 또는 개념들은 의례성을 이해하는 데 관계되고 도움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개념들이 독립적으로는 의례성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 예컨대, 의례성을 형식주의로만 파악하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표리부동이 곧 의례성은 아니다. 설명의 편의상 '형식주의적 문화와 사교가 의례적 언행과 의례적 상호작용을 조장하고 유발시킬 때 결과적으로 본심과 언행이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가정해 볼 때, 형식주의는 의례적 언행의 원인 또는 선행요인으로, 표리부동은 의례적 언행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적 판단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 도식에서 보면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은 이 양자간의 관계성을 매개하는 의례적 언행이라는 사회심리적 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연계되며, 동시에 이 양자의 개념은 의례성과 관계는 되나 의례성 자체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아은폐, 명분과 당위성 중시, 서열의식, 우회적 표현 등의 제 의례성 관련 개념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개념에 대한 고찰이 곧 의례성에 대한 연구관찰로 잘못 인식될 것을 우려하여 고찰에 앞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개념들을 어떤 순서로 고찰하고 소개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준거를 판단하거나 기준을 잡기 어려웠다는 점도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들은 모두 똑같이 관련된 방계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들 개념간에 추론적 관련성, 암시적 연계성 등이 있어서 어떤 것이 보다 중요한 개념이며 어떤 것이 의례성에 보다 더 밀접히 관계되는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편의상 형식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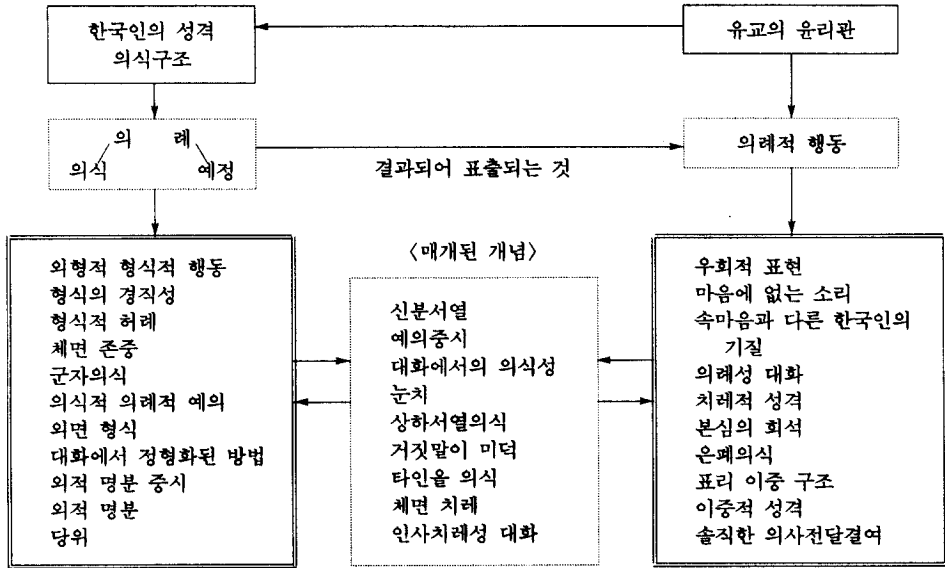


그림 1. 문헌분석을 통해 얻은 의례성 방계개념 도식

에 관계된 개념을 먼저 고찰하고, 다음에 표리부동과 관계된 개념을, 그리고 끝으로 이 두 범주와 상호관련되면서 어느 범주에도 독립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고찰하는 순서를 채택하였다.

한국인의 심성과 관련하여 형식주의를 지적한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이들이 형식성을 지적하는 데 사용한 표현은 약간의 뉘앙스적 차이가 있기에 이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이다.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은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에 치중한다(윤태립, 1988, p. 149).

의식적 의례적인 예의를 지키고 권위를 갖추고 행동을 진중히 하고 말을 절제하고 보행이나 언어를 조심하고 모든 것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외면 형식을 갖추는 것에 치중하였다. 내심은 어떤든 형식은 정중하고 남보기에 예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윤태립, 1988, p. 152.).

우리 한국사회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유교는 그것이 담고 있었던 정신보다는 현실적으로 형식의 경직성을 사회구조적으로 지속시켜 왔다(오세철, 1988, p. 40).

동양에 있어서 대화체널의 의식적 성격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데 신경을 쓰게 하였으며

동시에 자연적인 개인적 특성을 제거시켜서 일반적으로 옳다고 믿어지는 정형화된 방법으로 변화시켜 놓았다(오세철, 1988, p. 166.).

만사에 있어 본심은 가슴 속에 숨겨 두고는 명분과 당위성으로 본심을 짓누르고 참고 인내한다(이규태, 1991a, p. 263.).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층의식에서 나온 유교의 권위주의는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삼게 되었다. 내실을 기하는 서양의 군자도와는 달리 군자가 갖추어야 할 일은 내면적인 것보다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이었다. 이 외면적 존엄의 윤리는 말을 절제 하고, 의례적인 예를 잘 지킨다(박명석, 1993, p. 56.).

한국인은 명분을 중시한다. 여기서 명분의 범주에 속하는 내용은 형식주의적 사고 방식, 체면중시적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은 당위성과 명분을 강조하는 유교의 윤리관과 상관이 있다(차재호, 1983, p. 322).

이들 이외에 기존의 연구물에 대한 고찰의 형식을 빌어 형식주의를 지적한 것으로 김재은(1987)과 정한택(1979), 이부영(1988)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표리부동을 지적한 글들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은 흔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찾아온 방문객과 대답이 싫으면서 '더 이야기하고 가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서도 '자기집을 찾아달라'고 한다. 언제나 자기의 의식에서가 아니라 옆사람이나 옆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최재석, 1989, p. 122.).

한국인은 의사소통에서 우회적 표현을 쓰는 데 이것은 남더러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고 남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뿐더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재은, 1987, p. 103.).

한국인은 대체로 본심을 숨기는 은폐의식이 강하며, 적절한 은폐를 해야만이 인간관계를 모나지 않고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 중략 한국인의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 표리의 이중구조는 중요한 기본 공식이랄 수 있다. 외부와 내부의 완벽한 차단은 외부(표), 내부(이)의 이중구조를 뜻하며 이 표리의 이중구조는 한국인의 사색구조의 기본 패턴이랄 수가 있다(이규태, 한국인의 버릇, 1991b, p. 68.).

한국인에게 있어 거짓말이란 오히려 미덕이다. 있어도 없는 척하고 아파도 아프지 않다 하고, 좋아도 좋지 않은 척하고, 싫어도 좋은 척하는 것은 모두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때 한국인은 상대방의 감정속에 숨은 악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그것이 자극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의 에티켓이든 모두 이런 심리가 없지 않겠으나 동양인에게 있어 이런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인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극단화되면 병폐가 된다(이부영, 1988, p. 44.).

이밖에 이 두가지 범주와 상호관련되면서 한국인의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로는 '신분서열중시'(김재은, 1987; 이부영, 1988; 차재호, 1988; 한상복, 1988; 박명석, 1993), '체면치레'(정한택, 1979; 윤태림, 1986; 1991; 이규태, 1991; 최상진, 유승엽, 1992; 김대환, 1993; 백량기, 1994; 임태섭, 1993; 1994), '은폐의식'(이규태, 1991), '눈치'(오세철, 1979; 박종삼, 1985; 최상진, 1989; 최재석, 1989; 이규태, 1991; 임태섭, 1995), '의례성 핑계'(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유승엽, 임영식, 1995)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의례성 관련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의 관찰은 서로 다른 필자들이 위에 발췌된 개념들 중 비록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또는 두, 세 가지 개념을 선택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글의 맥락이나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들 저자들의 견해가 공통적인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이들 개념들이 한국인의 의식구조적 특징이라는 점, 둘째 이러한 의식구조는 유교문화 전통에서 기인했다는 점, 셋째 유교문화에서 예의중시, 신분서열강조, 권위주의, 당위와 명분중시 의식이 강조되었다는 점, 넷째 여기에서 한국인의 의식 속에 형식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주의의 속성으로 본심, 실질과 괴리된 허식, 허례, 체면, 자기억제 및 은폐, 치례성 등의 현상이 보편화되었으며, 다섯째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표리부동, 이중성, 거짓말 등이라는 것이다(유승엽, 1996).

앞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을 참조로 하여 의례성 관련문헌에서 다른 유관개념들을 검토해 본다. 먼저 형식주의나 표리부동은 모두 의전화된 언행과 그 언행에 합치되는 상념여부에만 중심적 초점을 맞추어 언행에 일치하는 상념이 없을 때 이를 형식주의에서 나타난 표리부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마음의 측면을 상념과 의도성(또는 동기)으로 구분하여 이 두 측면을 일반인 심관(마음을 보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마음과 언행의 불일치 문제를 변별시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의례성이 유발되거나 의례적 행동을 하게 되는 동인은 기본적으로 상념보다는 의도성으로 파악하고, 그 의도성의 궁극적 목표는 상대의 욕구, 기대 및 심정을 충족시키는 상대중심적 이타동기와 자신의 욕구를 의례성이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식을 빌어 충족시키려는 자기중심적 이기동기의 두 가지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분석틀에서 볼 때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은 모두 의례성의 동기-의도성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례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의례적 언행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의례적 언행을 동기적 측면과 결부시켜 볼 때, 그 언행은 형식적 언행, 표리부동 언행 또는 거짓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은 바로 여기에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가 단순히 언어학적 의미전달의 차원을 넘어 화

자의 의도성, 동기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인간의 사회심리적 상호작용에서 의도성과 동기의 측면이 대화나 사회적 인지의 과정에 막대한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부언이 불필요한 상식임을 감안한다면,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이라는 명명은 지극히 비사회심리적이며, 비언어심리적인 것이라고 해석된다.

의례성과 관련된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은 의례성의 사회심리적 본질에 무지하거나 의례성 문법을 모르는 외국인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상념과 언행만을 단순 비교하여 규정한 오류적 시각과 더불어, 한국인을 연구해 온 일부 일본인 학자들의 식민지 사관에서 발생한 한국인 비하심리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발간된 한국인 관련 문헌을 보면 상당수의 일본학자들이 본 한국인의 특성은 표리부동과는 정반대의 특성인 솔직성이다(豊田有恒, 1994).

또한, 김용운(1986, 1994)은 표리가 다른 것은 오히려 한국인보다 일본인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인들은 혼네(本音, 본심)와 다테마에(建前,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를 철저히 구별하여 사용하며, 따라서 일본인은 겉다르고 속다른 면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土居建郎, 1986; 서현섭, 1994). 의례성의 문화권에 사는 한국인에게 의례성은 의례성이지 거짓이나 표리부동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주의나 표리부동이 의례성을 이해하는 데 관련은 되나, 이 두 개념이나 현상은 의례성 이외의 다른 여러 현상들, 예컨대 체면, 눈치, 핑계, 신분서열, 겸손, 양보 등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똑같이 관련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례성을 이 두가지 개념으로 분석하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다른 개념들과의 혼돈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의례성의 개념화의 포괄성으로 인한 모호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의례성은 성격이나 의식구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관여되고 기능하는 사회심리적 현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문법으로 간주한다면, 기존의 의식구조적 시각은 의례성을 파악하는 데 부적합한 접근이며 불충분한 이

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례성은 상호작용적 맥락에서의 의례성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관련된 개념들은 의례성의 부연적 이해나 근원적 설명과 관련지어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유승엽, 1996).

## 의례성의 사회심리적 개념화

### 의례성의 정의

의례적 언행 또는 의례성이 어떤 성격을 띤 언행이며, 그것이 갖는 사회심리적 속성을 들추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 또는 작동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앞에서 실례로 제시된 의례적 언행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특징적 공통점을 하나 찾아본다면 사회-상황의 요구(social-situational requirements)와 개인의 욕구(personal needs)가 불일치된다는 점이다. 남상철씨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개인의 욕구는 회갑잔치를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황의 요구 측면에서 보면, 회갑잔치를 할 때 자식인 남상철씨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과 회갑잔치를 부모 스스로가 자식에게 차려달라는 일은 사회적 예의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점 등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가 회갑잔치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상철씨 어머니는 갈등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이때 상황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불충분하지만 차선적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중의 하나는 상황에 적합성을 갖는 의례적 언행이다.

여기에서 의례성이 상황적 적합성을 갖는다 함은 의례적 언행이 최소한의 의식성과 예의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욕구를 배려하고 이루어지는 언행이며, 의례성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용인된 상호작용문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적 문화관행에서는 의례적 언행을 비록 장려는 하지 않을지 모르나, 최소한 갈등상황에서 상황의 요구와 개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궁색한 상황에서 의례성은 용인된 문화관행의 하나로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례성 유발의 상황을 전제로 의례성을 정의해 보기로 한다.

의례성이란:

- ① 표면화된 언행에 상응하는 상념이나 신념이 모호, 결여 또는 언행과 상치되는 상태에서
- ② 언행자가 상대방의 사태적 욕구, 기대 또는 심정을 충족시키거나 언행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상태 또는 의도성이 유발된 상황에서
- ③ 상대방과의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 ④ 전형성과 예의성을 띤 상념-언행 불합치 모호(결여 또는 상치)한 언행을 언행자가 작위하거나 상호작용 양방이 교호적으로 작위, 반작위하는 현상과 이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상태를 지칭한다(최상진, 유승엽, 1994).

위의 정의는 의례성 언행의 작위자를 중심으로 한 의례성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례성에는 항상 상대 즉 수용자가 있어야 한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례적 언행자가 기대하는 상대의 욕구 및 기대의 충족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즉 성공적 의례성이 있는가 하면 실패적 의

례성도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의례적 언행이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는 동일한 상대에 있어도 때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의례적 언행이라도 가깝지 않은 상대에게는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반면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의례성이 노출될 때 섭섭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과 개인차,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의례성 수용의 문제는 앞으로 후속될 연구에 미루고, 아래에서는 작위된 의례성의 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형태를 평면적 안내지도의 형태로 분석해서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의례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심리과정 모형

여기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양자관계에서 의례성에 관련된 의례성 언행자의 상념, 동기, 언행의 형태에 따른 수용자의 대응적(corresponding) 수용양식 및 이에 따른 의례성의 효과와 더불어 수용자에서의 의례적 언행에 대한 의례성 인식문제를 의례성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모형화해 보았다.

모형의 제시에 앞서 앞에서 설명적 형태로 제시한 의례성의 유형을 정리된 개념화의 형태로 아래에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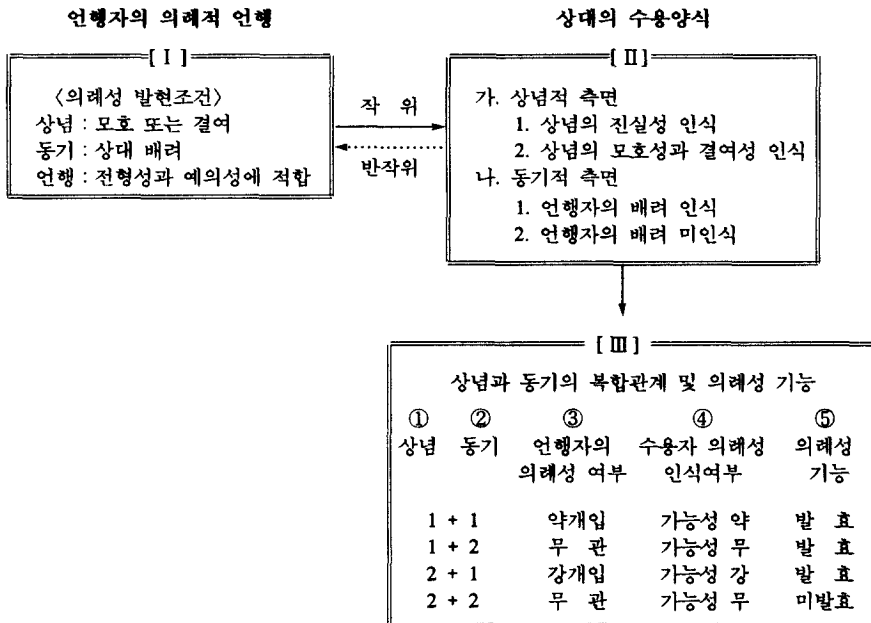


그림 2. 인사의 의례성에 관련된 심리과정 모형

정해 보기로 한다.

**인사적 의례성:**

- ①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우된 장면에서,
- ② 특별히 발현된 상념이 모호 또는 결여된 상태에서,
- ③ 상황에 적합한 상대배려적인 전례적 언행을 함으로써,
- ④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상대와의 사적인 관계를 언행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확인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적 의례언행을 지칭한다(최상진, 유승엽, 1994).

위의 모형에서 [III]의 의례성 여부(③)는 그 언행에 뒷받침하는 상념여부와 관련된다. 즉 상념이 모호하거나 결여된 상태에서 상대욕구중심적 동기가 작용할 때 언행자 입장에서의 의례성 지각이 있게 된다. 수용자의 의례성인식(④)은 수용자 측에서 언행자의 상

념이 언행과 불합치하고 동시에 언행자의 동기성이 감지될 때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수용자 측에서의 의례성기능 발효(⑤)는 언행자의 의례성이 언행자가 기대한 효과가 발현됨을 뜻한다.

**상대배려적 의례성:**

- ①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적 기대, 개인적 욕구 및 심정적 관여가 개입된 상황에서,
- ② 상대의 욕구와 상황적 요구에 상응하는 언행자의 상념이 모호, 결여 또는 상처되는 상태에서,
- ③ 상대의 욕구와 심정 및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하여,
- ④ 상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례성 언행을 의도적으로 해보이는 것을 지칭한다(최상진, 유승엽, 1994).

위의 도식에서 [II]의 가3의 상처성 인식은 언행자의 언행이 언행자가 가지고 있는 상념과 상처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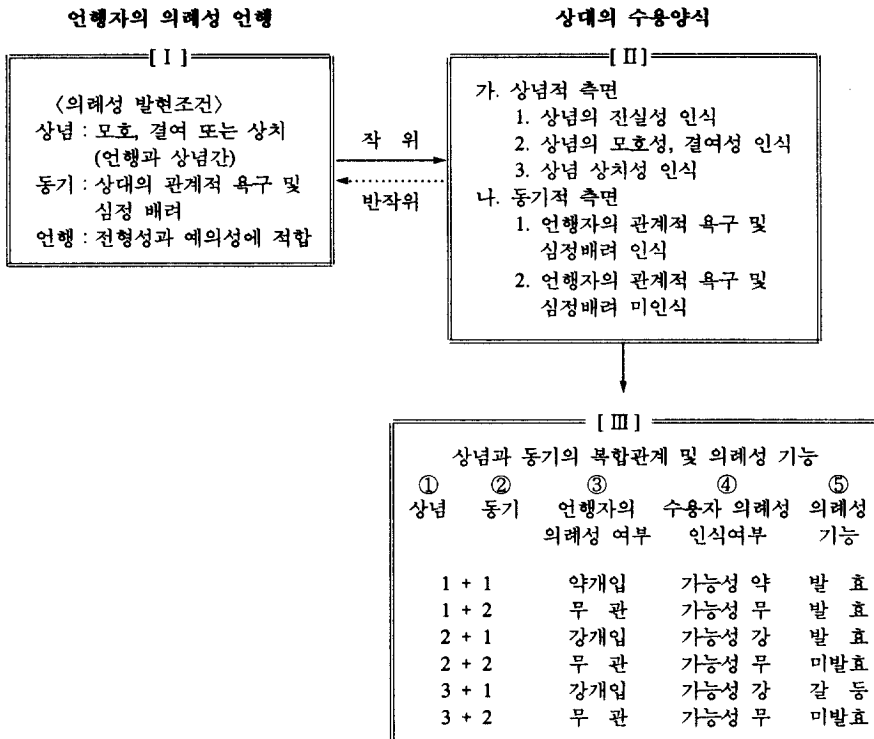


그림 3. 상대배려적 의례성에 관련된 심리과정 모형

수용자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III]의 3+1은 앞의 인사적 의례성의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미묘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자신을 배려해 준다는 점에서 고맙고 다른 한편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는 점에서 가증스럽기도 하다.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

- ①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적 기대, 개인적 욕구 및 심정적 관여가 개입된 상황에서,
- ② 상대의 욕구와 상황적 요구에 상응하는 언행자의 상념이 모호, 결여 또는 상처되는 상태에서,

- ③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기적 동기와 동시에 상대의 욕구와 심정 및 상황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이중적 동기가 관여된 상황에서,
- ④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또는 배제)하고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행을 전례성의 형식을 빌어 해보일 때 상대가 이를 예의성을 띤 의례적 언행으로 감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례적 언행을 하고,
- ⑤ 동시에 상대가 이를 의례성을 띤 의례적 언행으로 감지하여 똑같은 형태로 대응하는 양식의 의례성 교호작용을 양방향성 이중심리 의례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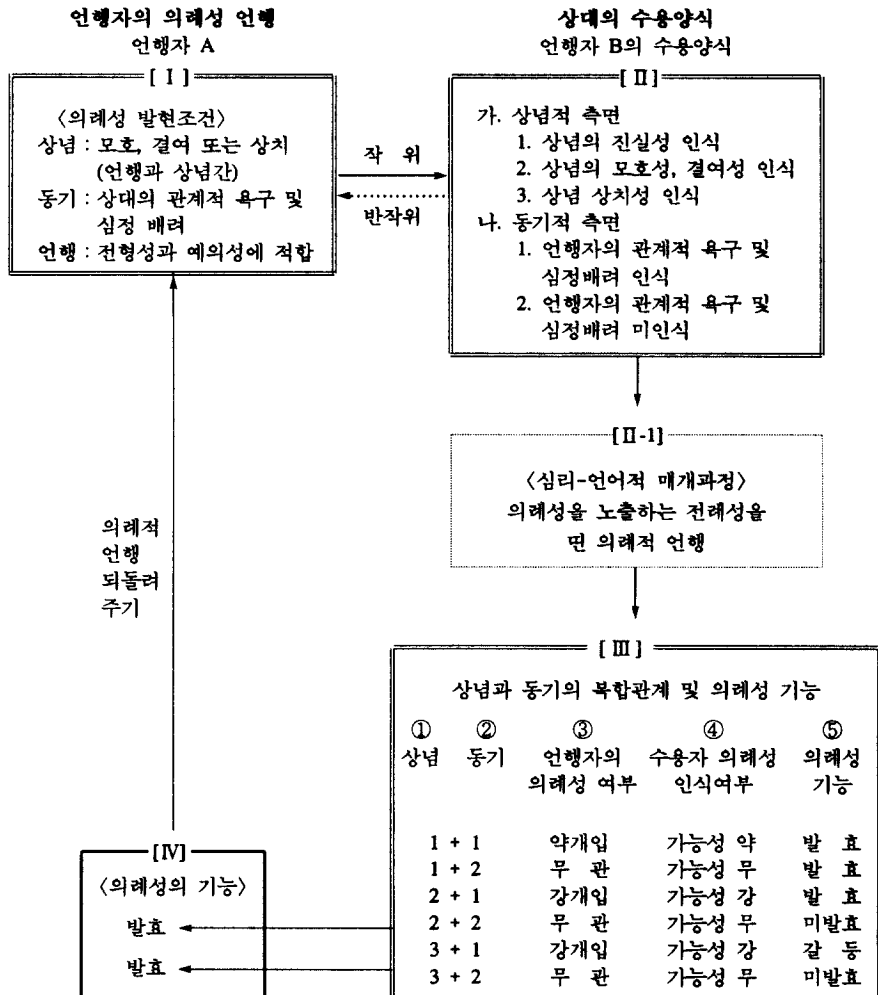


그림 4.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에 관련된 심리과정 모형

규정할 수 있다(최상진, 유승엽, 1994).

위의 도식에서 [II-1]의 심리-언어적 매개과정은 언행자의 의례적 언행을 수용자가 의례성을 띤 언행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언어-심리의 전례적 방식으로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IV]에서 [III]의 2 + 1과 3 + 1 만을 선택한 것은 그 두가지 형태에서 수용자가 의례성을 인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중심리의 의례성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똑같은 형태의 이중심리 의례성에 해당되는 의례적 언행을 수용자가 언행자에게 되돌려 반응할 때 양방향적 이중심리 의례성이 성립한다. 그 되돌림 반응이 [IV]와 [II]를 연계하는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 맺 음 말

우리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의례적 언행을 다반사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며 그런 대로 살아간다. 이처럼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의례성의 동기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좋은 뜻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의례성이라는 형식이 그 자체 속에 진실이나 진심을 간접적으로 유출시키는 공유된 의례성 기제를 공인된 형태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짓말로 의례적 거짓말로 형식화시키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윤택시키는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례성을 잘못 활용하면 그 본뜻과는 달리 상대에게 섭섭함, 불쾌함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의례성은 상대와의 관계, 상대의 성격, 상황적 심리상태, 사태적 맥락 등에 따라 표현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섬세화되어 있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 있어서까지도 적합성에서 이탈하기 쉬우며 그 효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의례성이 다른 사회 심리적 개념과 비교해 특이성을 갖는 것은 언행자가 상대의 상념, 동기, 심정과

같은 내적 심리상태를 미리 고려하고 이를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 측에서도 의례적 언행자의 이러한 심리는 물론, 그러한 언행이 수용자에게 이루어질 때 수용자가 미리 참작해서 언행한다는 것을 수용자가 고려하여 의례적 언행을 해석한다는 점에서(이중적 metacognition) 가장 복잡한 사회 심리적 과정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담고 있는 의례성을 단순히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형식주의나 표리부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례성의 본질에서 벗어난 탈 심리적, 탈 문화적, 형식 논리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최상진, 유승엽, 1995).

본 연구자가 제시한 의례성의 개념화는 한국인의 의례성에 관여되는 일반인의 복잡한 심리와 과정을 일반인 심리학(folk psychology)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떠내어 정리해 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개념화가 실제의 생활 장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사례중심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 주 목적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례성이 한국인의 대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현상적으로 존재하며 기능한다고 전제할 때, 한국인의 의례성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의례성이 한국인의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상호작용 문법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의례성을 심리학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타 문화권의 사람과 대인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인의 의례성이 과연 한국 문화에서 독특한 상호작용 문법이며 사회 심리적 기제인가에 대한 검토가 비교 문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의례성과 한국인의 의례성을 그 형식, 심리 기제, 내용 면에서 비교 분석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부가적인 소득은 한국인의 의례성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문헌을 고찰하



는 과정에서 얻었다. 즉, 일상적 관찰 수준에서 기술된 “한국인은 표리부동하다”,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한국인은 이중적이다”, “한국인은 은폐적이다”라는 범주의 자료를 얻었으며, 반면 “한국인은 솔직하다”, “한국인은 직설적이다”, “겉과 속이 같은 한국인”과 같은 상반된 언급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언급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즉 의례성)을 단지 서양인의 단순 해석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김용운(1986).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식구조. 서울: 한길사.
-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 서울: 한길사.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김재호(1994). 한국인은 이렇다. 조선일보. 1994. 9. 26.
- 도이다게오(土居健郎, 진근재 역(1986). 일본인의 심리구조. 서울: 도서출판 보림사.
- 도요다 아리츠네(豊田有恒, 황원권 역(1994). 일본인의 의식구조와 한국인의 행동양식: 일본인과 한국인 이점에서 크게 다르다. 서울: 동학사.
- 동아일보사(1991). 한국인 진단: 자기 성찰을 통해 본 우리의 자화상. 동아일보사.
- 박명석(1993). 동과 서-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 박종삼(1985). 한국인의 사회행동에서 나타나는 체면, 기분, 눈치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의 가능성. 송전대 학생지도연구, 12월.
- 백량기(1994). 확대자향의 한국인 축소지향할 수 있는 한국인. 서울: 시대문학사.
- 서현섭(1994). 일본은 있다. 서울: 고려원.
- 여동찬(1987). 이방인이 본 한국 한국인. 중앙일보사.
- 오세철(1979).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서울: 박영사.
- 오세철(1988).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 유승엽(1997). 문화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 토착심리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여성연구소 논문집, 제 6 권, 중앙대학교, 103-130.
- 유승엽·임영식(1995). 한국인의 책임회피의식과 귀인 및 통제소재와의 관계성 고찰. 국제여성연구소 논문집, 제 3 권, 중앙대학교, 105-122.
- 윤태림(1988).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 윤태림(1991). 한국인. 서울: 현암사.
- 이규태(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 이규태(1991). 한국인의 버릇. 서울: 신원문화사.
- 이부영(1988). 한국인의 성격-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태섭(1993). 한국적 인간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적 토대: 정, 체면 그리고 눈치. 한국 언론학회 춘계 학술발표.
- 임태섭(1994). 체면의 구조와 체면 욕구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2호, 207-247.
- 임태섭(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정한택(1979). 한국인. 서울: 박영사.
- 차재호(1983). 국민성의 활성화시안: 시안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인의 윤리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문집 83-2. 322-327.
- 차재호(1988). 한국인의 성격-국민성의 활성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최연희(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연희·최상진(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93-302.
- 최상진·임영식·유승엽(1991). 평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39-410.
- 최상진·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6권 제2호, 137-157.
- 최상진·유승엽(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 초록, 369-385.
- 최상진 · 유승엽(1995b). 한국인의 의례성에 관여되는 심리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발표논문초록*, 523-542.
- 최상진 · 최연희(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눈치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시안.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12-221.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복(1988). 한국인과 한국문화: 인류학적 접근. 서울: 심설당.
- Brown, P., & Levinson, S. D.(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achman, D., DeCarufel, A., & Insko, C. A.(1978). The extra credit effect i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458-465.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 Prentice-Hall.
- Gaelick, L., Bodenhausen, G. V., & Wyer, Jr. R. S. (1985). Emotion communica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5), 1246-1265.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Doubleday.
- Hill, B., Ide, S., Ikuta, S., Kawasaki, A., & Ogino, T.(1986).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Quantitative evidence from Japanese and America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10, 347-371.
- Hinde, R. A.(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
- ship*. Academic Press.
- Hsu, F. L. K.(1983). *Rugged individualism reconsidered*.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 Ide, S.(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 8, 223-248.
- Jones, E. E.(1964). *Ingrati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Crofts.
- Jones, E. E., & Garden, E. M.(1972). Timing of self-disclosure and its effects on 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358-365.
- Jones, E. E., Stires, L. K., Shaver, K. G., & Harris, V. A.(1968). Evaluation of an ingratiation by target persons and bystanders. *Journal of Personality*, 36, 349-385.
- Jones, E. E., & Pittman, T.(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1, 231-262), Hillsdale, NJ: Erlbaum.
- Jones, E. E., & Wortman, C.(1973). *Ingratiation: An attributional approach*.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Schlenker, B. R.,(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Sears, D. O., Freedman, J. L., & Peplau, L. A. (1985). *Social psychology*(5th Ed), Prentice-Hall.
- Wegner, D. M., & Vallacher, R. R.(1980).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 Proposal on a Psychological Process Model of UIRYESUNG and Its Functions in Korean Interactions**

**Seung Yeob Yu**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lic Relation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sychological process model of UIRYESUNG(Ritualized Social Behavior) and its functions in korean interactions. The examples of UIRYESUNG arising in daily life, will be described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psychological innate attributes of UIRYESUNG interactions will be prescribed. Through this process, the relationship of UIRYESUNG with 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and concepts will be examined. The comparison of UIRYESUNG, with ingratiation, etiquette and politeness will be provided, highligh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concepts. Further, the misunderstanding of UIRYESUNG interactions as being a form of formalistic behavior or double-hearted action by ethnological and folk-customs scholars, will be critically examined. Preliminary survey results suggest three distinct categories concerning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UIRYESUNG interactions; conventional, other-oriented and dual-minded reciproca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 starting point for the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interaction and relationship of the korean. Also the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UIRYESUNG interactions of Korean will decrease the biases, as nonKorean interact with Korean in various cross-cultural settings, and ai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